



03 GOVERNANCE



28	지배구조
30	ESG경영 체계
34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40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지배구조

지배구조 특징

유한킴벌리는 1926년 설립된 제약사 유한양행과 1872년 설립된 킴벌리클라크가 1970년 3월 30일 설립한 합작 회사입니다.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경영을 총괄하며, 환경/경제/사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지속가능 의제들은 이해관계자위원회, ESG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합니다. 주주는 유한양행(30%)과 킴벌리클라크(70%)이며, 총 발행 주식은 4,000만 주, 자본금은 2,000억 원입니다. 유한킴벌리는 이러한 지배구조 전반의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

(2023년 7월 기준)

이사회	직책	형태	성명	성별
	이사	상근	진재승	남
		비상근	트리스트람 오토 윌킨슨(Tristram Otto Wilkinson)	남
		비상근	조육제	남
		상근	신봉철	남
		비상근	김수카 나심한(Kimsuka Narsimhan)	여
		상근	김소원	남
		비상근	키티 리(Kitty Li)	여
감사	직책	형태	성명	성별
	감사	상근	이종호	남

이사회 구성과 보상

유한킴벌리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7인의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대한민국 상법 규정을 따르며, 의장 부재 시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의장직을 수행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상은 2022년 3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연간보수한도액(이사 50억 원, 감사 5억 원) 내에서 기본 연봉과 성과급을 종합해 지급되며, 경영진은 재무적 성과 평가 및 지속가능경영을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및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임원 성과 지표로 지속가능성 목표를 연계하여 평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의제 논의

2022년에 유한킴벌리는 주주총회 2회, 이사회 4회를 각각 개최하여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사회 참여율은 100%를 유지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을 승인하였고, 이사회를 통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 비즈니스 계획, 대전공장 신규 투자 등을 검토 및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2022년 유한킴벌리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 아울러 2022년 사내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에서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의제를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사회에 3회에 걸쳐 보고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조직

유한킴벌리는 회사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GT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실행을 바탕으로 성장과 변화를 실현하고자 부문-본부-워크그룹이라는 기존의 조직 구조는 유지하고, 9부문-1연구소-4공장-28본부-1센터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5개의 본부로 운영되었던 B2B사업부문을 'B2B 영업 및 혁신본부'와 '헬스케어 마케팅본부' 2본부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영업 기능의 통합에 따른 빠른 대응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매뉴팩처링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조생산부문의 '스마트엔지니어링본부'를 '엔지니어링본부'와 'MDX본부'로 분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설비 투자로 최첨단 부직포 생산이 가능해진 부직포공장은 '미래신소재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앞으로도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2023 지속가능경영 조직도

(2023년 3월 1일 기준)



* EX: 2022 명칭 개편 포함, 구 HR본부
 ** QA: Quality Assurance(품질보증)
 *** PSRA: Product Safety Regulatory Affairs(제품안전법규)

ESG경영 체계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체계

유한킴벌리는 창사 이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SG 위원회를 출범하고 전략적 ESG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전사적인 실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는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2022년 ESG위원회는 ESG 자체 진단 결과와 리스크 관리 방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환경성 개선을 위한 투자(CAPEX) 증대, 인권경영 선언문 내용, ESG 이니셔티브 진행 사항, 이사회 보고 사항 등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주제별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의사결정과 실행을 경영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ESG 조직 체계



ESG 이사회 보고 정례화

유한킴벌리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내이사 3인이 ESG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ESG 자체 진단을 통해 ESG 지배구조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22년 1월부터 이사회 개최 시 ESG 안건을 보고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ESG 보고 안건은 각 영역의 주요 사항이며, 실적, 현황, 진단과 리스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사회 ESG 보고 안건

1차 (1월)	2차 (3월)	3차 (11월)
· 사회 - 안전보건 성과 및 계획	· 거버넌스 - 윤리 및 법규 준수 - 내부통제 - 다양성 목표와 현황(여성인력)	· 환경/사회 - ESG 자체 진단 결과 보고 - 환경 이니셔티브 성과와 계획 - 사회 이니셔티브 성과와 계획

ESG 추진 전략

유한킴벌리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글로벌 ESG 평가 지표에 따라 자사의 현황을 자체 진단하고, 8대 주요 분야의 이니셔티브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이니셔티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ESG 8대 추진 분야

PURPOSE	8대 추진 전략 분야	추진 이니셔티브*		
<p>GOOD FOR PEOPLE</p> <p>↑</p> <p>사람과 환경</p> <p>↓</p> <p>GOOD FOR PLANET</p>	거버넌스/윤리경영	ESG위원회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노동/인권	인권경영 선언	DEI**	
	보건안전	안전보건경영 강화	제품 안전 강화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구매원칙	협력회사 ESG 강화	
	사회책임경영 (숲과 사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굿브랜드(Social Impact)	
	정보보호/고객	개인정보보호	고객만족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 3.0 실천	탄소중립 경영체계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속적인 혁신 (제품과 서비스)	지속가능제품 출시	전과정평가(LCA)	

* 주요 추진 이니셔티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행할 예정입니다. **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ESG 리스크 진단 및 관리

유한킴벌리는 지구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ESG 자체 진단을 통하여 잠재 위험 관리와 ESG 실행 강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과 한국의 주요 평가 지표를 검토하고, 유한킴벌리와 관련한 지표로 재분류하여 361개의 ESG 진단지표를 선정(신규 지표 41개) 및 평가하였으며, 2021년 대비 환경 2.5%, 사회 16.3%, 지배구조 11.6%의 지표 총족률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선 내용은 전체 ESG 거버넌스에 소속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ESG확대위원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2022 ESG 진단지표

중요지표를 선택하여 10개 영역 361개 ESG 진단지표 선정(신규 지표 41개)				
1단계: 주요 평가지표 목록	2단계: ESG 지표 재분류	3단계: ESG 진단지표 선정		
<p>S&P Glob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환경, 사회 총 21개 영역 108개 평가지표 · S&P 지수로 변경 후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 관리 필요 	<p>E</p> <p>원칙 및 규정, 환경 데이터, 저감 프로그램, 인증 및 정보 공개 등으로 분류</p>	<p>E</p> <p>환경 Environmental 95</p> <p>노동 Labor Practice Indicators 55</p> <p>보건안전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4</p>		
<p>CD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연계된 지배구조, 위기 및 전략, 정보 공개 등 25개 진단지표 · 유한킴벌리 자체 대응 계획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부분에서 중요 			<p>S</p> <p>노동, 보건안전, 공급망 관리, 구성원 인권, 지역사회 공헌의 운영 체계 및 주요 데이터, 내역 공개 등으로 분류</p>	<p>S</p> <p>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22</p> <p>인권 Human Rights 14</p> <p>지역사회 공헌 Corporate Citizenship and Philanthropy 16</p> <p>정보보호 및 고객 관계 Information Security & Customers Management 9</p>
<p>한국ESG기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환경, 사회 174개 지표에서 193개 세부 진단지표 도출 ·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지표로 상장사뿐 아니라 투자사가 요청하는 타 기업까지 평가 	<p>G</p> <p>조직 및 전략, 영향력과 함께 이사회 구성 및 책임, 평가, 공개 등으로 분류</p>	<p>G</p> <p>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61</p> <p>윤리경영 Codes of Business Conduct 16</p>		
<p>KR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 대다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영향력 증대 				
<p>TCF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와 R&O에 대한 지표 				
<p>K-ESG평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지표 및 공시기준 분석하여 61개 ESG 핵심 사항 제시 				
<p>ecovad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기업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관행 평가 및 모니터링 ·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의 영향 4개 분야로 질문 구성 				
<p>Global Compact Network Kore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에 관한 문항 약 60개가 담긴 질문 구성 				

ESG 이니셔티브 성과

유한킴벌리는 ESG 진단 결과에 따라 실행 과제를 선별하고, 2022년부터 실무위원회 및 TFT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47%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진행되는 자체 진단을 통해 변화하는 ESG 리스크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제화하여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2022년 ESG 실행 결과는 사원 공개 원칙에 따라 사내에 공유하였으며, 투명한 공개로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 2022 ESG 진단 결과 기회 요인

ESG	기회 요인
환경	· 환경경영 3.0 거버넌스 강화 필요 ·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목표 수립 및 구체화
사회	· 인권경영 체계 강화 · 보건안전 조직 강화 · 공급망 내 E/S/G 통합 시스템 구축
지배구조	· 비상장기업 특수성 개선 노력 필요

10개 분야
66개 추진 과제

2 ESG 실행 과제

* (): ESG 실행과제 수

카테고리	2022년	2023년 목표	2025년 목표
일반(6)	83%(5)*		100%(6)
환경(13)	38%(5)	69%(9)	100%(13)
노동(12)	33%(4)	50%(6)	100%(12)
인권(4)	75%(3)		100%(4)
지역사회 공헌(2)			100%(2)
보건안전(6)	67%(4)	100%(6)	
공급망 관리(3)		100%(3)	
윤리경영(4)	50%(2)	100%(4)	
지배구조(11)	27%(3)		100%(11)
정보보호(5)	100%(5)		
전체 이니셔티브(66)	47%(31)	67%(44)	100%(66)

4 ESG 실행 결과는 사원 공개 원칙으로 사내에 공유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개



ESG위원회 결과 사원 공유(인트라넷)

3 2022년 ESG 이니셔티브 주요 성과

ESG위원회	· ESG위원회 정례 개최 및 ESG 안전 검토 승인 · ESG 안전 이사회 보고(환경/반부패/젠더/사회)
인권경영 체계 강화	· 국제노동규약에 의거 인권선언문 공개, 인권보호 업무 지침 신설 · UNGC 기업과 인권 이니셔티브 참여
지속가능 공급망 강화 노력	· 지속가능구매원칙 수립 ·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Green Action Alliance) 추진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점검 (지속가능제품 매출/탄소/플라스틱/펄프/물 저감 노력)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잉여 배출량 거래 및 탄소 저감을 위한 투자 방향 검토
ESG 실행 체계 구축	· ESG 이니셔티브 이행 · 정기 진단을 통한 진행 상황 진단 · ESG 내재화 교육 실행

통합적 리스크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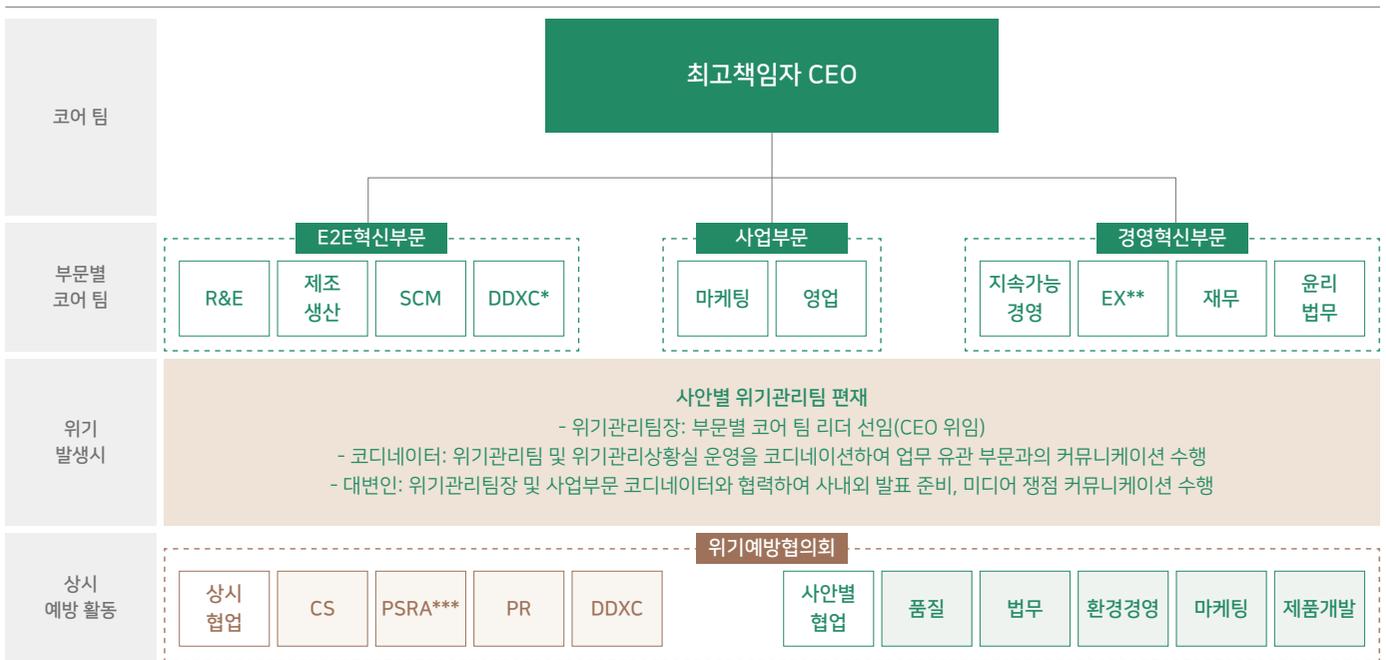
위기관리팀

유한킴벌리는 위기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기 예방 활동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시 사안별 위기관리팀을 편제해 관리합니다. 유한킴벌리 위기관리팀은 위기관리 최고책임자, 부문별 코어 팀, 코디네이터, 대변인 등으로 구성되며, 위기관리팀의 최고책임자는 CEO입니다. 최고책임자는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 위기관리팀의 구성원들과 외부 전문가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시합니다. 부문별 코어 팀은 해당 부문과 관련된 위기 관리 시스템의 유지와 위기 관리 운영에 대한 책무를 가진 팀으로, 해당 이슈에 직접 관여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운영 전반 점검과 업무 유관 부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대변인은 사내외 발표 준비와 미디어 쟁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합니다.

위기에방협의회

유한킴벌리는 2012년부터 상시 협업 조직인 위기에방협의회(Crisis Prevention Committee)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제품과 관련된 사회적 기대나 잠재적 이슈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고객만족, 제품 안전/법규, 언론/공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사안별로 법무, 환경경영, 품질 등의 기능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에방협의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대와 잠재 이슈에 대한 예측 및 선제 대응, 연간 위기 관리 트레이닝 기획/실행, 비즈니스 이슈/위기 관리 및 상시 컨설팅, 위기 관리 매뉴얼 운영, 잠재 위험 진단, 조기 경보 프로세스 운영,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등입니다. 위기에방협의회는 최근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책임경영 강화 요구, 리더십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잠재 위험 최소화, 리더의 위기 예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팀 거버넌스



* DDXC: Digital Data Excellence Center ** EX: Employee eXperience *** PSRA: Product Safety Regulatory Affairs(제품안전법규)

위기 관리 매뉴얼

유한킴벌리는 위기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위기 관리 책임자의 범위, 위기관리팀 구성과 역할, 책임 분담, 커뮤니케이션 정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위기 관리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정됩니다. 올해에는 기존의 전사, 사업장 차원의 잠재 이슈 평가 외에도 공급망, IT, EX 분야 등에서도 잠재 이슈를 선정,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지속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는 위기 관리 매뉴얼에 새롭게 수록되어 유지, 관리될 예정입니다.

위기 관리 시스템

거버넌스	<p style="text-align: center;">유한킴벌리는 위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기 예방 활동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시 사안별 위기관리팀을 편재해 관리합니다. 유한킴벌리 위기관리팀은 위기 관리 최고책임자, 부문별 코어 팀, 코디네이터, 대변인 등으로 구성되며, 위기관리팀의 최고책임자는 CEO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위기 예방 위기예방협의회 주도 고객만족, 제품 안전/법규, 언론/공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사안별로 법무, 환경, 품질 등의 기능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p>			<p style="text-align: center;">위기 관리 사안별 위기관리팀 편재, 운영</p>
분야	전략/정책 개발	이슈/사회적 기대 모니터링 및 반영	전사적 역량 강화	위기 관리/명성 회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관리 정책/매뉴얼 운영 · 대외 커뮤니케이션 정책 운영 · 위기관리팀 조직 및 체계화 · 명성 관리 및 회복 전략 · 위기 관리 절차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예방협의회 운영 · SNS 조기 경보 체제 · 이슈 모니터링 및 분석 · 공중 인식 조사 · 이슈 데이터베이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관리 트레이닝 · 잠재 위험 진단(내외부) · 중점 관리 영역 도출 및 제공 · 부정적 이슈 관리 TFT 운영 · 위기 예방 활동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입장 및 대응 전략 마련 · 언론,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응 ·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부문별 전략 가이드 제공 · 위기 관리 종료 보고(재발방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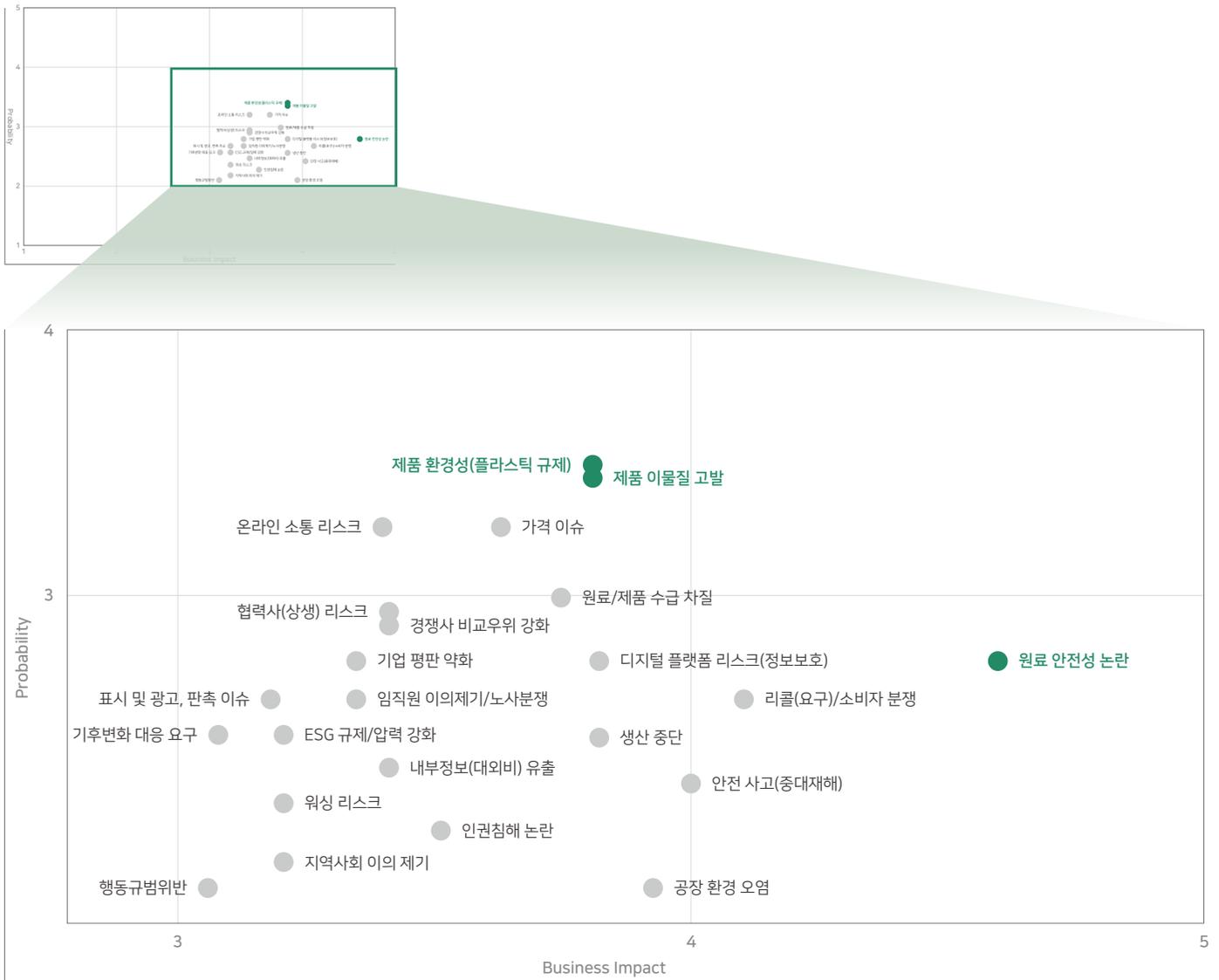
잠재 위험 평가

위기에방협의회에서는 매년 팀 리더를 대상으로 제품, 프로세스, 사람,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 평가합니다. 2023년에는 총 23가지로 위기 유형을 분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기 관리 매뉴얼과 위기 관리 트레이닝에 반영해 전 사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재 위험 평가에서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를 고려해 워싱 리스크, 기업 평판 약화, 경쟁사 비교우위 강화 항목이 신설되었고, 기후변화 대응 요구와 인권침해 논란 항목이 보완되었습니다. 상위 3개 잠재 리스크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 시 준비, 대응, 복구의 3단계에 따른 고려 사안과 책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상위 3개 이슈로 평가된 원료 안전성 논란, 제품 환경성, 제품 이물질 고발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한킴벌리는 전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기능별 잠재 위험에 대한 평가 수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부터 각 부문은 해당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킥오프 미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리스크 맵



위기 관리 역량 강화

유한킴벌리는 구성원 모두가 위기 관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위기 예방훈련을 시행하고, 매년 리더를 대상으로 정기 위기 관리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기업 내부, 외부 이슈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 공유와 리더 위기 예방 역량 강화를 주제로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린워싱 등 3개 주제를 선정, 잠재 위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대응 실습을 통해 직접 대응/예방 방안을 도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 트레이닝 실습까지 진행했습니다. 2021년부터 신임 리더, 신규 입사자를 위한 위기 관리 세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사원을 위한 심층 인사이트 온라인 세션을 도입, 사업 단위별로 맞춤형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3 위기관리 트레이닝

정보보호

정보보호 조직의 운영과 이슈 대응

유한킴벌리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이 지속가능경영에 필수임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정보보호 담당자, 보안운영 담당자로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조직은 이슈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회사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와 관련한 주요 부서의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정보보호 자원 할당과 정보보호 관련 이슈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전담 조직

- 정보보호 전담 인력
- 정보보안 협의체



* CPO: Chief Privacy Officer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과 노력

유한킴벌리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보호 정책과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둘째, 보안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정보보호를 강화합니다. 셋째, 사원들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유한킴벌리는 국내 ISMS-P 인증*과 국제 ISO 27001 인증** 등 정보보호에 대한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ISMS-P 인증: 국내 기업들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으로, 정보 시스템 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해 라이프 사이클(수집/보유/이용/제공/폐기)에 따라 개인정보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정보 시스템, 인력, 물리적 위치 등을 포함한 높은 수준에서의 관리 체계를 평가합니다.

** ISO 27001 인증: 정보보호관리 시스템(ISMS)에 대한 국제 표준으로, 정보보호 정책, 조직 구조, 인력 관리,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관리 체계를 검증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ISO/IEC 27001:2013 정보보호 국제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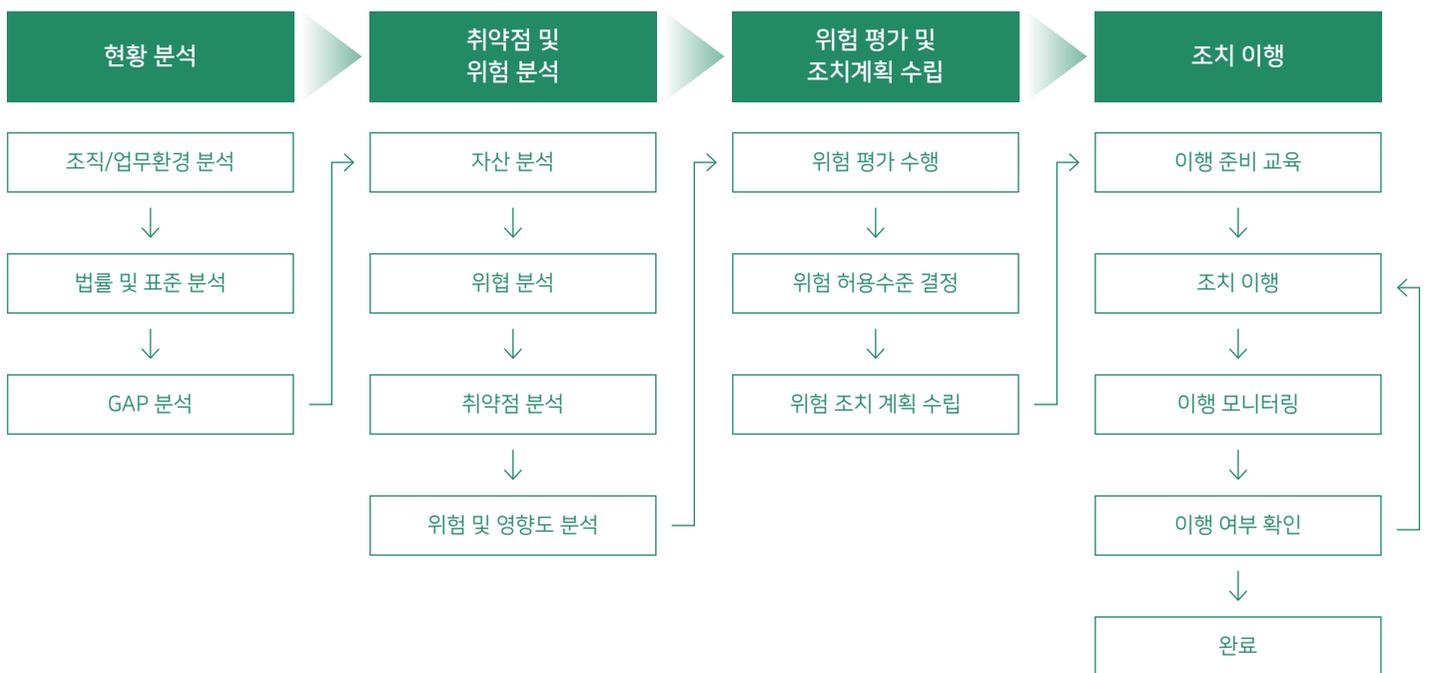


인증범위: 유한킴벌리 온라인 서비스 운영
 유효기간: 2021.04.22~2024.04.21
 인증번호: ISMS-P-KISA-2021-016



인증범위: 맘큐 및 SSO,
 물류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IT 운영
 유효기간: 2021.08.19~2024.08.18
 인증번호: IS 754206

정보보호 프로세스



사내 정보보호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사원 정보보호 교육은 조직의 정보자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 전반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공유하며,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정보보호 교육과 분기별 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원들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업무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서도 사이버 공격과 피싱 위협에 대한 경고와 예방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교육명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참여 인원
2022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	· 피싱 메일과 피싱 사이트 주의 · 재택근무 시 보안 유의 사항 · 정보보안 정책, 표준 및 절차 인식 교육	1시간	686명
정보보호 캠페인	분기별 주제 변경하여 진행 · 피싱 메일 피해 예방 W.A.I.T 캠페인 ·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사이버 보안을 유지하는 10가지 팁	분기 1회(총 4회)	전 사원 대상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

유한킴벌리는 일찍부터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EO 직속 윤리경영 실천 전담 조직인 윤리법무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 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분부 유관 조직인 내부통제위크그룹, 내부통제위원회, 자율준수실무위원회 등과 함께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재무 및 현업 경력 15년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된 감사조직은 각 부서의 감사결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행동규범과 윤리문화 확산 지지를 위한 실천

유한킴벌리는 사단법인 윤경ESG포럼(전 윤경SM포럼) 회원사로서 윤리경영 확산을 지지하고 실천합니다. 2003년부터 CEO가 직접 윤리경영 선언에 참여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을 선언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제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행동규범 이외에도 반부패 정책, 공정거래 정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사내 인트라넷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복 금지 정책의 3가지 약속

- 1 솔직하게 제기한 우려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2 우려 사항을 제기한 직원들을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 3 보복 행위가 보고되면 완전한 조사를 시행하고, 최고 해고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6가지 윤리문화 실천원칙

- 1 소신있게 말하기
- 2 보복금지
- 3 이해상충 방지
- 4 회사기밀 보호
- 5 상호 존중
- 6 안전이 핵심가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와의 약속

윤경ESG포럼 CEO 선언 및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2023년 4월 20일에는 윤경ESG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0회 윤경ESG포럼 CEO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0년 연속으로 이 서약식에 참여,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서약식은 '기업가여, CEO(Chief Ethics Officer) 최고윤리책임자가 되라'라는 부제로 개최되었으며, 20주년 특별행사로 진행된 '윤리경영기업' 인증식에서 유한킴벌리가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윤리서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제3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내 윤리 및 인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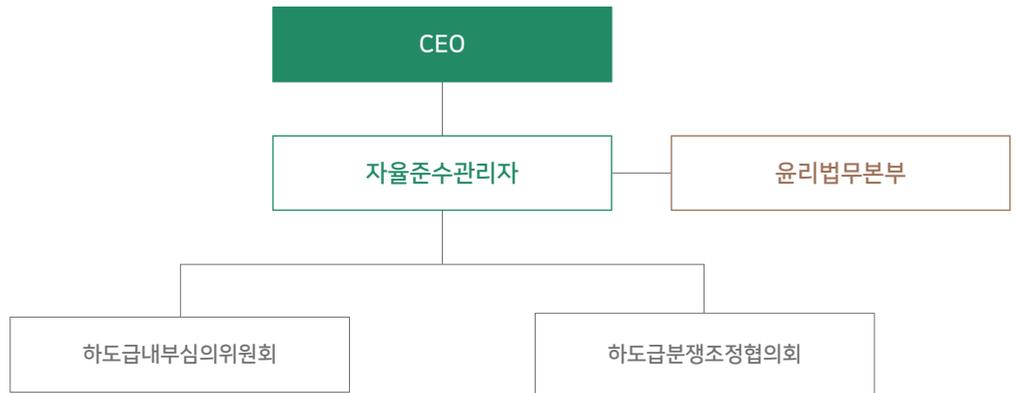
유한킴벌리는 2022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포용과 다양성(I&D) 관점에 기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 개선,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및 행동규범 등으로 구성된 총 5시간의 윤리 및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반부패 정책 중 이해상충 정책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영업 및 구매 담당자들에게는 공정거래 준수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의 결과, 2022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012년 1월부터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을 줄이는 수단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유한킴벌리는 회사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내 법규 준수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서와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해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 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과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도



행동규범 위반 신고 채널

유한킴벌리의 고충 처리 접수와 해결은 사이버 신문고 제도,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라인(070-4732-5803)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프라인의 경우 제3자 외부 채널 활용으로 객관적이고 자발적인 제보를 보장합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해외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유한킴벌리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 사례는 없었습니다.